

"십수년 바다 살림, 바다만큼 정직한 것은 없어"

[제주잠녀] 4부 '잠녀, 지키다' <178> 고송환 성산어촌계장

등록 : 2011년 05월 11일 (수) 09:55:27
최종수정 : 2011년 05월 11일 (수) 09:55:27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2001년 7월 성산어촌계가 자율관리어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시행한 어장관리사업과 철저한 수산물 채취 금지기간 이행 등으로 자원조성사업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1999년부터 바다 살림 도맡아온 여장부...자율관리어업 성공 이끌며 산업석담훈장도 어장 관리·잠녀 관광자원화 등 적극 '잠녀 인식 변화 뚜렷, 무형문화유산 기대감 커'

지난 2003년 제1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장, 바닷바람에 잔뜩 그을린 여장부의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려 퍼진다. '크다' '억세다'의 느낌이 아니라 '자신감'의 발로였다. 살아온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다와 부대껴온 이의 내공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울 만큼 강했다. 고송환 성산어촌계장(65)은 그날 자율관리어업 성공사례 발표부문에 우수상을 받았다. 조금은 모자라고 아쉬운 느낌을 전하자 고 어촌계장은 이내 손사래를 친다. "아는 거라곤 물질하는 것밖에 없는데 뭐 한거 있젠 상까지 주고...(아는 것이라고는 물질밖에 없는데 뭐 한게 있다고 상까지 주고)", 그리고 8년여의 시간, 성산 바닷가에서 만나고 어촌계장의 목소리는 더 커져 있었다.

"Can-do Spirit!"

LA타임즈 존 글리오나 기자는 제주 잠녀를 만난 소감을 이 한 마디로 표현했다. "Can-do Spirit!(잠녀는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물 속에 뛰어든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을 푸른 눈의 외국인 기자가 짚어낸 것이다.

삶이 힘들고 경제 사정은 왜 나아지지 않는지를 한탄하고 맥을 놓고 있었다면 지금의 제주 잠녀는 없었다.

오히려 물질을 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겼고, 두려움에 맞섰다. 바다에서의 작업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다. 순식간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간다. 그런 거친 삶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억척스러울 수밖에 없다. 가장 조직적이면서도 적극적이며 바다에 대한 몰입도는 제주 잠녀가 세대를 건너 전하고 있는 위대한 정신이자 문화다.



▲ 고승환 성산어촌계장이 천초를 고르고 있다.

고 어촌계장에게서 느낀 포스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다. 전경일 인문경영연구소장의 「해녀처럼 경영하라」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느껴졌던 것들을 몸뚱이로 보여주고 있었다.

물에 있을 거란 짙막한 정보를 가지고 차를 달려 찾아간 길, 얼마간의 기다림 끝에 고 어촌계장을 만났다. 아니 찾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어촌계 잠녀들과 갈래곰보 작업을 마치고 물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매매가 진행된다. 흠뻑 물을 머금은 고무뱀에, 뚝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왔다는 기척에 바로 "아이고, 뭐 들을 것 있젠 여기까지 와서"타박이 쏟아진다. 뱀들은 척 작업을 거둬고 탈의장으로 향하는 오토바이를 쫓는다. 다시 기다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서둘러 고무뱀을 손 보지 않으면 다음 작업에 지장을 주는데다 오랜 작업의 흔적인 소금기를 덜어내기 전까지 잠녀들의 발을 붙잡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수년 동안 바닷가를 돌며 쌓은 경험 덕분에 '변신'을 한 고 어촌계장의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10여년 바다 살림 중

고 어촌계장은 12살 나던 해 '잠녀'가 됐다. 다른 바다는 모른다. 1975년 성산으로 시집을 오며 고성 어촌계를 탈퇴하고 성산어촌계에 가입한 것이 변화라면 변화다. 당시 돈을 입어료 3만원을 내고 성산 바다에서 물질을 했다. 한 길 두 길 깊은 물 속으로 발을 차 들어가 물건을 찾고 물 밖에 나오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 긴 숨을 토해낸다. 숨이 차오르는 가쁜 일과는 세월이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고무뱀을 입고 난 뒤 더하면 더했지 작업이 쉬웠던 적은 없다. 바뀌지 않은 것 중 하나는 정직한 노력의 대가다.

고 어촌계장은 "바다만큼 정직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겨울부터 바다 사정이 나아진 것은 이곳도 비슷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꾸준히 어장 관리를 해온 덕분이다.

고 어촌계장은 1999년부터 '어촌계장'으로 바다 살림을 하고 있다. 2001년 7월 성산어촌계가 자율관리어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시행한 패조류 투석, 해저생물 구제, 갯바위 닦기 등 어장관리사업과 전복 등 철저한 수산물 채취 금지기간 이행 등으로 자원조성사업의 극대화를 꾀해 왔다. 이를 통해 공동체 어가 평균 소득이 늘어나는 성과도 얻었다. 고 어촌계장은 2005년 산업석탑훈장도 받았다.

성산어촌계는 잠녀의 관광자원화에도 적극적이다. 어업 외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관광객을 상대로 한 수산물직매장 2곳 외에도 정기적으로 잠녀 물질 공연도 하고 있다.

국내외 유명 인사나 제주에서 큰 행사가 열릴 때면 고 어촌계장의 얼굴을 신문이나 TV화면에서 볼 수 있을 정도다. 지난 2008년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제주 방문길이나 최근 제주 7대자연경관 선정 기원 때 제주를 상징하는 문화 아이콘인 '잠녀'를 소개하는 자리에 섰다.



▲ 성산어촌계 잠녀들이 갈래곰보 작업을 하고 있다.

“바다도 나이를 먹는다”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고 어촌계장은 잠시도 쉬지 않는다. 손으로는 연신 전날 작업한 천초를 뒤집으며 상품을 골라낸다. 작업 중 늘어선 문자 메시지며 부재중 통화도 확인한다. 잠녀에서 '어촌계장'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다른 잠녀들이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동안에도 고 어촌계장은 회의 일정을 살핀다.

고 어촌계장이 "바다도 나이를 먹는다"는 말을 툭 던진다. 때가 있다는 말이다. 천초 등 해조류도 시기를 놓치면 늙어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소라나 전복 등 종패도 시기를 맞춰 관리하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많다. 잠녀이면서도 또 그들을 관리하는 입장에 서야 하는 조금은 불편한 사정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래도 잠녀를 아는 만큼 잠녀를 위해 필요한 것도 안다.

고 어촌계장은 "어촌계장이 되고 난 뒤 잠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언제부터인가 '잠녀'라고 병원 치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연구 등을 이유로 찾는 사람들도 늘었다. TV에서나 봄직한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사진을 찍고 사는 방법을 묻는다. 바다 사정을 묻고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 나선다. 예전에는 안 그랬다. 이제는 잠녀 문화 세계화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사실 잠녀들에게 문화재니 무형문화유산이니 세계화니 하는 얘기는 딴 나라 말처럼 낯설다. 하지만 고 어촌계장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고 어촌계장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잠녀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증거 아니냐"며 "바다가 노력하는 만큼 주는 것처럼 우리 잠녀들이 그만큼 고생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을 알아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온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뿐일까. 앞으로 바다와 제주섬이 품고 있는 문화의 시간, 제주 잠녀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

/▲특별취재반=김대생 교육체육부장·고미 문화부장